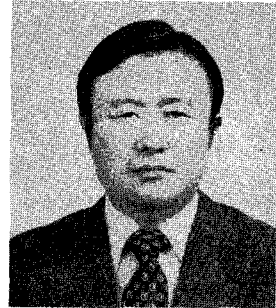


장기적이고 일괄성있는 발전방안 계획 수립 위해 양계인 단합해야

지 설 하

국립종축장장 / 농학박사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장,
농수산부 축산국장 역임



양계 산업 은 근래(近來)에 와서 종계(種鷄)의 선발사육(選拔飼育), 사양기술(飼養技術)의 개선, 질병 예방(疾病豫防), 유통개선(流通改善) 등 경영 합리화 유도(誘導)로 양계업(養鷄業)의 합리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총 축산물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양계산업에 있어서 아직도 안정화(安定化)나 체계화(體系化)가 되어있지 않아 양계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불안정(不安定)으로 양계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몇가지 개선점(改善點)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수급조절(需給調節) 및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전담기구(專擔機構)의 설치가 시급히 요망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양계는 전년도 가격조건(價格條件)이 양호하면 생산을 대폭적으로 늘려 과잉생산(過剩生産)을 야기시켜 가격을 폭락케하고 다음 해에는 생산량을 대폭적으로 축소(縮小)시켜 가격을 폭등(暴騰)케하는 모순(矛盾)을 지양(止揚)하기 위하여 생산자 스스로가 생산량을 조절케하는 생산체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생산자 보호(保護)를 위한 자율적(自律的)인 생산조절(生産調節)기구는(機構) 선진국(先進國)에서 볼 수 있

는바 호주의 에그 보오드(Egg Board), 브로일러 보오드(Broiler Board) 및 미국의 에그 보오드(Egg Board), 브로일러 카운실(Broiler Council)과 같은 기구를 우리나라에서도 설치하여 생산공급(生産供給) 및 가격조절(價格調節)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호주의 보오드 시스템(Board System)은 생산자, 소비자 및 정부대표로 구성된 기구로서 모든 양계산물을 취급하는 소위 창구(窓口) 일원화(一元化)로 되어있고 양계업자들의 보오드(Board)와 일정한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같이 만족하는 거래가격(去來價格)이 결정되므로 생산자가 일정한 이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도 축협중앙회 산하에 지역 축협이나 업종별 조합에서 외국과 같은 보오드 시스템(Board System)을 모방(模倣)한다면 수급조절(需給調節)과 가격안정에 기여될 것으로 믿는다.

즉 양계산물 수급 예측사업(豫則事業), 생산 및 공급조정(供給調整), 소비촉진(消費促進), 기금조성(基金造成) 및 관리,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사정(價格査定)을 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이 될 것이다.

둘째, 국산계(國產鷄) 개발로 우수(優秀) 국산종계(國產種鷄)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보급

(生産普及)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종계 생산보급은 수입(輸入)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해마다 많은 외화(外貨)의 낭비(浪費)와 종계 도입에 따른 새로운 질병(疾病)이 끊임없이 들어올 우려성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국산계의 개발로 능력(能力)이 외국계(外國鷄)와 동등한 우수종계의 개발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 기관과 순계(P.L)농장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우수계통을 활용하고 부족한 계통을 일부 도입하여 기초계(P.L)의 사육규모의 확대와 국내에 있는 가금육종(家禽育種)학자의 두뇌를 모아 개발한다면 국산계 개발이 이루어져 우수종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함으로써 생산효율(生産效率)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생산효율의 향상은 양계생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양계업자의 이익을 최대화 하므로써 양계산업의 안정적 기반이 구축 되어질 수 있다. 이는 사료의 안정적(安定的) 수급(需給)으로 품질개선(品質改善) 및 가격의 안정을 꾀하고 시험연구사업(試驗研究事業)을 통한 최신 사양관리 기술 개발 및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시설(施設)의 근대화(近代化)는 노동력의 절감 및 질병(疾病)의 예방(豫防)이란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만 한다. 국내의 닭 질병수는 40여종으로서 급성전염성질병 및 만성 소모성질병으로 인한 손실액은 막대하다. 특히

국내 총 축산물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양계산업이 아직도 안정화와 체계화가 되어있지 않아, 양계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계사(種鷄舍) 및 부화장(孵化場)의 철저한 방역, 사료위생철저, 도계검사(屠鷄檢査)를 통한 병계(病鷄) 유출방지, 닭 사육방식으로서 일시에 입식하고 출하(all in-all out)하는 제도 채택, 방역에 대한 연구조사 및 홍보활동의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양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타당성 있고 계획성 있는 장기(長期) 양계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직접 공동으로 참여하고 정부로서는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금융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양계인과 정부가 모두 합심하여 일괄성(一括性) 있는 계획과 정책을 밀고 나가며 서로 단합하고 협조한다면 '80년대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 비위생적인 난죄유통 추방해 질병전파 방지하자
- '나'를 생각하기 앞서 '우리'를 생각하는 양계인
- 적정생산, 적정출하로 발전하는 양계산업

- 대한양계협회 정화추진위원회 -